

보도시점 2025. 8. 8.(금) 15:30 배포 2025. 8. 8.(금) 10:00

##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 성장전략TF 후속조치로 관계부처·기업·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업종별·지역별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 논의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지속 관심 요청
- R&D 이후 사업화, 글로벌 기업 육성 이어달리기 지원도 건의

정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8.8일(금) 14:30에 개최하였다.

### <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 (오송) 개요 >

- ▶ (일시·장소) '25.8.8.(금) 14:30~15:30,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 ▶ (참석자) 정부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 중기·산업·복지부, 식약처, 충청북도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화장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 메디톡스, 노바렉스, 코스맥스파마, 메타바이오메드, 케이피티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앞으로 릴레이 현장간담회는 업종별·지역별로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업·유관기관이 폭넓게 참여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기업 규모별 규제, 지주사 규제 등 개선 방안을 심층 토론할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는 참석기업이 실제 기업 성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 기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지원 점감구간을 마련\*\*한 점, 올해도 조특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하는 기간 연장(3 → 5년)

\*\* 중소기업 졸업후 R&D, 투자 세액공제는 3년간 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준 지원

이어서 유망 중소·중소 중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 글로벌 기업 육성 까지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관계 부처는 유망 바이오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과 밀접한 유망기술 제품화, 투자 연계, 수출,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바꿔나가자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정책조정국<br>서비스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박언영 (044-215-4610)       |
|       |                 | 담당자 | 사무관 | 한유빈 (youbinhan@korea.kr) |
|       |                 |     | 사무관 | 김동연 (yanidong@korea.kr)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